

'벚꽃 피는 봄날에도 이제 임실'

남원시, 산불 비상근무 체계 가동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 ‘옥정호 벚꽃축제’ 5~6일 개최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5일 화려하게 열린다.

군은 오는 5일부터 6일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임실 방문의 해와 만나는 특별한 축제인 2025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 피는 봄날에도 이제 임실’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등이 준비됐다.

축제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한다.

1일 차인 5일에는 △운수광랜트 공연 △아카펠라 공연 △팔레타 공연 △임실필봉농악 △개막식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식 이후 마련된 축하공연에는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트롯 프린스 양지원, 트롯 다람쥐 강혜연, 트롯 요정 김다현이 출연하여 축제 방문객들에게 흥겨운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2일 차인 6일에는 △임실센스난장 △2025 옥정호 벚꽃가요제로 이들 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번만 아니라 체험존에서는 △벚꽃비즈 벚꽃공예 △도자기 체험 판매 △옥정호 인생 사진 △페이스페인팅 △옥정호 벽화 그리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먹거리존은 다양하고 가성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5일 화려하게 열린다.

비 높은 간식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먹거리존에서는 온안면 어머님들의 깊은 손맛을 자랑하는 소머리국밥과 임실치즈가 듬뿍 담긴 치즈불어빵과 치즈호떡, 무가당요거트와 구워먹는 치즈, 치즈소시지 등 다양한 치즈 먹거리와 닭꼬치, 김밥, 떡볶이 등 푸드트럭 등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특히 온안 한우특화거리에 최근 문을 연 '옥정호 한우'도 청정 임실에 자란 한우고기가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올해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실에서 우

리 함께 꽃길 걷기'라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축제 기간에 쌍암리 주차장에서 행사장 입구까지 25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편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에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를 준비 중"이라며 "설레는 봄날, 옥정호에서 봄의 기운을 실컷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순창군이 2025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민의 장은 순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적이 큰 순창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군은 지난 1일 군

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문화장에 윤흥관(65세)씨, 공익장에 이동주(79세)씨, 애향장에 안준태(88세)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장 수상 대상자인 윤흥관 씨는 전통 장승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공예가로 북흥면 추령장승촌 조성과 추령



문화장 윤흥관

공익장 이동주

애향장 안준태

장승축제 개최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문화 행사 발전, 장승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수상자인 이동주 씨는 농약장사 및 순창국악원 부원장·원장을 역임하며 20년 이상 농약 보급에 힘써왔다. 또한, 읍면 농약단 창단과 지도, 주민자치위원회, 애향본부, 자율방재단

활동 등 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와 주민 화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애향장 수상 대상자인 안준태 씨는 동계면 출신 재경 향우로, 문교부 등 교육 행정을 통해 순창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왔으며, 제13대 재경순창군향우회장과 재경동계면향우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향우 간 교류와 단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160여년 전통의 이계재 서당을 중건하고 마을 정비를 위한 토지를 무상 기부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헌신이 인정됐다.

최영일 군수는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 세 분은 순창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이라며, "이번 수상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순창군도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청명·한식 대비... 드론 활용 예찰·홍보 강화

남원시는 경남 산청·하동 산불 등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순 없는 날'이라고 해 모지를 이장하는 '청명(淸明·4월 4일)'과 '한식(寒食·4월 5일)'이 다가옴에 따라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산림녹지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등산로·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림 지역과 등산로에는 입산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후 불씨 취급 차단을 위해 감시원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조정하고, 묘지 이장 등 대장지를 사전 확인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여 지리산 드론안전구조대와 협약 후 지리산 권역 인 인봉, 인월, 아령, 산내, 산동



의 주요 산불취약지에 산불방지특별 대책기간인 4월 20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찰활동은 산불 예방 홍보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수 어르신들 위한 축제 개최

순창군이 오는 18일 장수의 고장다 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순창·구례·곡성·담양군이 함께 하는 '구곡순담 100세잔치'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과 양지천 꽃잔디 길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2003년에 창립되어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 손꼽히는 네 지역이 함께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회장군인 순창군은 같은 날 열리는 장수노인 파크골프 및 게이 트볼 대회와 함께 이번 축제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장애인체육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0세잔치에는 구

곡순담 네 지역에서 선정된 95명의 장수 어르신과 관람객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장을 빛낼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장수비결, 이곳에 있소이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된 장수기원 마당극이다. 이 마당극은 실제 지역 어르신들의 생생한 장수 비결을 재치 있게 풀어내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이후에는 분홍빛 꽃잔디로 물든 양지천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한 추억이 쌓이 시간이 마련된다. 장수 가족 사진 인생네컷 촬영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 담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올해 첫 개최되는 참두름 여행 축제와 함께 봄나물의 향연까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꾸며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520명 대상 장내기생충 검사 무료 실시

남원시보건소는 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장내기생충 검사(간흡충, 장흡충 등 11종)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간흡충 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 기구는 끓는 물에 소독 사용하는 등의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에게는 무료로 약제비를 지원하고 투약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통해 완치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내기생충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보건소(063-620-7931~2)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기초 문해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교육, 생활 속 금융·건강 정보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습자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분관(620-8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가센터, 농업기계사고 시간급조치·사용법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남원소방서 소속 대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사고 시 긴급조치 및 사용법 교육'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농업기계 구조 및 긴급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운기,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풀 탈곡기 등 주요 농업기계의 구조 및 작동원리, 사고 발생 시의 초기 대응 요령, 안전장치 작동 방법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기계를 시연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